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2, Vol. 31, No. 1, 187-202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심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이 경 림† 권 정 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을 한국의 이혼 가정 아동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CODIP는 이혼 가정 아동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12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현 연구에서는 회기의 수를 10회기로 단축시켰다. 특히 CODIP에서 다루는 이혼과 관련된 특정적인 치료 요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집단 아동들을 CODIP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횟수의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발견된 차이점들은, 치료자의 관심이나 지지, 참가자들의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CODIP 특정적 요소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70명으로, 프로그램 종결 전에 이사나 전학을 간 아동, 사전 측정치에서의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70%이상 참가한 아동만 통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는 41명의 아동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CODIP에 참가한 아동은 12명(남자 6명, 여자 6명), 자기표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중 이혼 가정 아동은 22명(남자 13명, 여자 9명),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 복지관이나 방과 후 교실 교사, 아동 본인에게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과 종결 1주일 후에 사전, 사후 평가를 하였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를, 아동에게는 소아 불안 척도, 소아 우울 척도, 공격성 척도,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했다. 사전 평가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소아 불안 척도에서 CODIP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었으나 이외의 모든 척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총 회기 중 70%이상 참가한 아동 51명만을 대상으로 반복측정 ANOVA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아동이 보고한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가 평가한 행동 문제나 아동의 불안, 우울, 공격성,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이혼, 이혼 가정 아동, 프로그램 효과 검증

---

* 이 논문은 이경림(2009)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림 /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3층 임상심리실
Tel : 02-3410-0928 / Fax : 02-3410-0944 / E-mail : bearhug83@gmail.com

www.kci.go.kr

서 론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이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혼율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서양 사회에서는 일찍이 이혼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3; Kurdek, 1981; Wallerstein, 1983).

이혼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양 부모 가족 형태를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부모의 이혼을 아동의 적응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상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Hetherington & Stanley-Hegan, 1999).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이혼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 행동적인 적응 문제를 밝혀내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혼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Hetherington, Cox, & Cox, 1985), 이혼 가정 아동들은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양 부모 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분노, 공격성, 비행,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lly, 1988).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수행된 연구에 대한 Amato와 Keith (1991)의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이혼 가정 아동들은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관계의 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의 부적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초기의 연구들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이 병리적인 이론적 틀과 부정적인 측면에 더욱 민감한 개념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Blechman, 1982; Kanoy & Cunningham, 1984).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방법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화하고 종단 연구, 대단위 연구들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거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혼 직후의 혼란기가 지나면 많은 아동들은 다시 적응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위기를 극복하며, 이전에 비해 더 잘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mato & Keith, 1991; Chase-Lansdale & Cherlin, 1995).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여러 강점들을 개발해낼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Gately & Schwebel, 1991). 이에 최근에는 이혼을 병리적인 개념이 아닌, 가족 변화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이혼은 스트레스를 주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이전의 가족 갈등에서 벗어나 보다 만족스럽고 충만한 관계로 접어들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Hetherington, 1999).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Stolberg와 Cullen(1983)의 이혼 적응 프로젝트(Divorce Adaptation Project: DAP)다. 이는 12회기의 개입 프로그램으로, 82명의 이혼 가정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www.kci.go.kr

수행되었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한 곳에 할당되었다: 1)아동 만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 2)부모만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 3)아동과 부모 모두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 4)어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는 통제 집단. 그 결과 아동은 아동 개입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부모는 부모 개입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얻었으며 부모와 아동 모두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에서는 이에 필적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 Stolberg & Cullen, 1983; Stolberg & Garrison, 1985).

DAP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Pedro-Carroll과 Cowen(1985)의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10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비교 집단 아동들에 비해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불안 수준이 감소하였고 유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학교 수행, 또래 관계, 이혼에 대한 감정, 아동이 보고한 자기개념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후 1회기를 더 추가하여 11회기의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도 이혼 가정 아동들의 적응 수준이 프로그램 참가 후 양 부모 가정 아동들의 적응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Pedro-Carroll & Cowen, 1985; Pedro-Carroll, Cowen, Hightower, & Guare, 1986). 이 프로그램은 4-6학년 도시 거주 아동들에게 맞게 14회기로 수정하여 적용하였을 때에도, 5-6학년 아동들에 맞게 1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을 때에도, 부모, 교사, 아동, 집단 리더의 평가에서 효과성이 반복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Pedro-Carroll. Alpert-Gillis, & Cowen, 1992;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7).

Sterling(1986)은 12회기의 CODIP를 11회기로 수정하여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3학년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교사를 제외한 아동, 부모님, 집단 리더의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2-3학년 도시 아동을 대상으로 CODIP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CODIP가 아동의 발달 단계적, 사회 문화적 현실에 맞게 수정,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 되었다(Alpert-Gillis, Pedro-Carroll, & Cowen, 1989).

국내에서도 이혼 가정 아동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오은순(2001)은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8회기의 학교중심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22명의 초등학생들은 통제집단 아동들에 비해 문제 행동이 감소하였고,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불안 수준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집(2005)은 총 8회기의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가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8명은 통제집단 아동 8명에 비해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아동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혼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www.kci.go.kr

들은 방법론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통제 집단의 아동들은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반적인 집단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변별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 중 하나는 통제 집단에도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처치 프로그램 집단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이혼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요소들의 효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이다(Alpert-Gillis, Pedro-Carroll, & Cowen,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을 실험 집단에 대한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치료자의 관심이나 참가자의 기대 효과, 집단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효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의 특수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해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CODIP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외 프로그램들이 다루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여러 연구자가 서로 다른 표본 집단에 시행하여도 효과적인 것으로 반복 검증이 된 CODIP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으로,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종합 사회 복지관과 방과 후 교실, 지역 아동 센터에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후 해당 기관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연령과 조건에 맞는 아동이 5명 이상 있는 곳을 선택하였고, 4개의 종합 사회 복지관과 2개의 방과 후 교실, 1개의 지역 아동 센터에서 총 70명, 10집단이 모집되었다. 이들은 이혼 가정 아동은 58명(82.8%), 양 부모 가정 아동은 12명(17.2%), 남자 45(64.3%)명, 여자 25명(35.7%)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집단들은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집 순서에 의해 처치 집단인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이나 비교집단인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과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에 아동 자신, 부모님,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시행하고, 10주 동안 주 1회, 1시간씩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1주일 후 사전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교사 평가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복지관이나 방과 후 교실의 담당 교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또래 관계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학교의 교사보다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아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자라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가 전체 프로그램의 주 진행을 담당하였고 임상 및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

www.kci.go.kr

정 학생들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보조 진행자로 각 집단에 한 명 씩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아동의 자기 보고식 평가

소아 우울 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소아 우울 척도는 Kovacs (1983)이 Beck의 우울 척도를 8-13세 연령의 소아에 맞도록 변형시킨 것으로,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는데 점수의 범위는 0-54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이다.

소아 상태 불안 척도(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AIC). 소아 상태 불안 척도(SAIC)는 Spielberger(1972)의 성인용 상태불안 척도를 소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 시킨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수철, 최진숙(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는 것으로 점수의 범위는 20-6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이다.

공격성 척도

아동용 공격성 측정 도구는 Buss와 Durkee (1957)가 개발한 '적의성 검사' 중 '공격성 진단검사'와 Murray의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허일범(1997)이 제작한 30문항의 자기보고식 공격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을 각각 6문항씩 측정하고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5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 (Child's Attitude and Self-Perception: CASP).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 검사는 Pedro-Carroll(1984), Smilansky (1992)가 사용한 척도 문항 중 오은순(2001)이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번안,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혼을 알리기, 재결합의 희망, 동료의 조롱, 자기 비난, 버려짐에 대한 불안, 부모 비난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0이다.

아동 행동에 대한 양육 부모 및 교사의 평가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이 스스로 보고한 내용 뿐 아니라 외현적으로 관찰되는 부분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부모와 아동이 다니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이나 복지관 교사들에게 아동 행동을 평가하게 하였다. 부모와 교사의 평가는 모두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Achenbach와 Edelobrock(1983, 1991)이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경자, 이혜련과 홍강의(1997)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4세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행동 문제를 0, 1, 2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

www.kci.go.kr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총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10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는 위축,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의 31문항과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비행, 공격성의 3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46명의 양육 부모가 평가한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 7명의 방과 후 교실이나 복지관 교사가 평가한 점수의 내적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과 비교집단인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의 집단 간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류 변인에는 χ^2 검증을, 연속 변인에는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아동들의 우울, 불안, 이혼에 대한 태도, 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행동 문제 등에 대해 프로그램 참가 1주일 전과 프로그램 종료 1주일 이후에 각각 사전, 사후 평가를 하였다. 이들 측정치 중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각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혹은 독립 표본 t 검증을 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집단 간 척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변화 양상은 집단 ×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로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음의 두 집단 중 한 집단에 참여하였다. 1)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한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 2)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발표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되는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의 회기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회기-3회기는 이혼과 관련된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지지적인 집단 분위기에서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4회기-8회기에서는 사회적인 대처 기술 훈련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도록 돕는다. 또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역할 연기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9회기-10회기는 새로운 가족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과 가족의 장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 (비교집단)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집단 아동들은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는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CODIP와 동일한 횟수인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회기 다른 주제에 관해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치료자나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CODIP에서 다루는 이혼에 대해 개

www.kci.go.kr

표 1.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목표	프로그램 내용
1	서로 알아가기	집단원들이 정해진 질문에 따라 서로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집단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한 부모 가정 아동임을 알게 됨. 아동들은 인터뷰한 내용을 전체 아동들에게 발표하여 자신의 짝을 소개함. 리더는 집단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비밀 보장의 원칙을 알려줌.
2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나오는 영화를 일부분을 함께 시청한 후 영화 속 아동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함. 이를 통해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며, 이혼 후 느낀 감정들도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됨. 이혼에 대해 아동들이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알아봄.
3	변화에 대처하기	2회기에 이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또래 아동이 나오는 영화의 일부분을 시청함. 부모의 이혼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하며, 이혼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토론함.
4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한번쯤 문제를 겪게 되며,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줌.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4단계를 가르쳐준 후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숙제를 내줌.
5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2)	아동들에게 카드를 한 장 씩 나누어준 후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묘사해보게 함. 익명으로 쓴 카드를 걷어 문제 상황을 전체 아동들에게 알려준 후 함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봄. 실제로 적용해본 소감을 발표함.
6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별하기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단계를 적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혼과 관련하여, 부모님을 재결합 시키거나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것과 같은 문제는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시킴. 이에 몰두하기 보다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에너지를 쏟도록 함.
7	분노 이해하고 대처하기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은 여러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함.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나-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난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줌
8	분노 다루기	아동들이 화가 났던 상황에 대해 묘사해보게 하고 역할 연기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재연해보게 함. 그런 후 나-표현방법(I-statement)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게 하고, 처음의 대처 방법과 어떻게 다른 느낌이 드는지 발표해보게 함.
9	자존감 향상시키기	다른 어떤 가족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족만의 장점, 부모의 이혼 후에 일어난 좋은 변화들, 고민이 생겼을 때 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써봄. 또한 집단원들이 서로의 장점에 대해 종이에 써주게 함.
10	집단 마무리하기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집단 활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복습해봄. 집단 종결을 맞이하는 소감을 나누고, 프로그램 수료증과 9회기에 작성한 자신의 장점이 적힌 종이를 받음.

www.kci.go.kr

표 2.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구성	목표	프로그램 내용
1	집단 구성원 알아가기	도화지에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그려봄. 집단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 동물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함.
2	가족 소개	자신의 가족을 자유롭게 그려본 후 전체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가족과 비슷한 가족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봄.
3	나의 장단점	도화지에 손바닥을 그린 후 한 쪽 손바닥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다른 쪽 손바닥은 자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칠함. 그런 후 좋아하는 색으로 칠한 곳에 자신의 장점들을, 싫어하는 색으로 칠한 곳에는 자신의 단점들을 써봄.
4	소망 상자	자신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그린 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과 비슷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봄.
5	감정 사전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가능한 많이 그려봄. 집단을 두 팀으로 나누어 아동이 그린 감정 얼굴이 어떤 표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함. 또한 최근에 그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함.
6	감정 경험 이야기하기	최근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봄. 당시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좋았던 이유를 발표해봄.
7	만화 이어그리기	집단원의 수만큼 도화지를 분할하여 각자 한 컷씩 돌아가며 만화를 그려 전체 줄거리를 완성시킴. 자신의 것이 돌아오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함.
8	미래의 나의 가족	현재 나의 가족에서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 함. 현재의 가족이 아닌 미래의 자신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발표함.
9	나의 미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발표함.
10	집단 마무리하기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을 쓰고 집단원들이 돌아가며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줌. 종결을 맞이하는 느낌을 서로 나눔.

방적으로 이야기하기, 이혼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기, 이혼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기술이나 분노 조절 훈련 등의 인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두 프로그램의 공통 요소인 정서적 지지나 관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CODIP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혼과 관련한 주제, 분노 조절 및 사회기술 훈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에 참가한 70명의 아동 가운데 프로그램 종결 전에 이사나 전학을 간 아동, 사전

www.kci.go.kr

표 3.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N=41)

	이혼 가정 비교집단(n=22)	양부모 가정 비교집단(n=7)	CODIP 집단 (n=12)	χ^2 or F
성별				.65
남	13	5	6	
여	9	2	6	
나이	11.64(.72)	12.14(.69)	12.00(.85)	1.60
경제수준				9.89*
100만원 이하	12	1	8	
100-200만원	6	2	3	
200-300만원	4	4	1	
300만원 이상	0	0	1	
이혼기간	4.28(2.24)	-	7.11(3.18)	1.37*

*p < .05.

측정치에서의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70%이상 참가한 아동만 통계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총 41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나이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제수준은 양 부모 가정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이혼 이후의 경과 기간은 CODIP 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이혼 가정 비교 집단 아동들에 비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CODIP 집단과 자기표현 집단에 대한 사전 측정치 비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교사와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 아동 상태 불안 척도, 소아 우울 척도,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세 집단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CODIP 프로그램 집단 참가 아동들이 더 높은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40)=3.85$, $p<.05$.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척도들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적응 문제의 변화 양상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세 집단의 적응 척도에서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의 변화 양상은 집단 ×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로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이혼 이후의 경과 기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www.kci.go.kr

표 4. 세 집단의 사전 측정치 비교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이혼 가정 비교집단(n=22)	양 부모 가정 비교집단(n=7)	CODIP 집단 (n=12)	*F* or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K-CBCL(교사)	13.77 (8.78)	15.71 (10.22)	17.67 (16.94)	.42
K-CBCL(부모)	20.23 (18.48)	8.00 (6.53)	17.08 (11.54)	1.69
불안 척도	32.73 (5.62)	28.29 (6.21)	36.58 (7.60)	3.85*
우울 척도	10.64 (6.03)	10.43 (7.74)	13.67 (8.52)	.79
공격성	80.05 (21.39)	84.57 (26.43)	83.50 (21.39)	.15
이혼에 대한 태도	39.11 (5.98)	-	39.33 (9.73)	.00

*p < .01.

교사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CBCL)에 대한 집단 간 측정 시기별 효과

교사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 리스트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30)=.46$, ns, 측정시기의 주 효과 $F(1, 30)= .14$, ns, 그리고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30)=2.94$,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CBCL)에 대한 집단 간 측정 시기별 효과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 리스트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6)= 1.28$,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26)=.01$, ns, 그리고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6)=1.28$,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상태 불안 척도에 대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상태 불안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81$,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27$, ns,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2, 29)=.81$,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소아 우울 척도에 대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소아 우울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80$,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61$, ns,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9)=.80$, ns,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www.kci.go.kr

표 5.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 대한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집단	14.59	1	14.59	.38
오차	688.36	18	38.24	
피험자내				
측정시기	76.28	1	76.28	4.62*
집단×시기	74.83	1	74.83	4.53*
오차	297.02	18	16.50	

*p < .05.

아동의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도에 대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공격성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2.12$,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2.89$, ns,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9)=2.12$, ns,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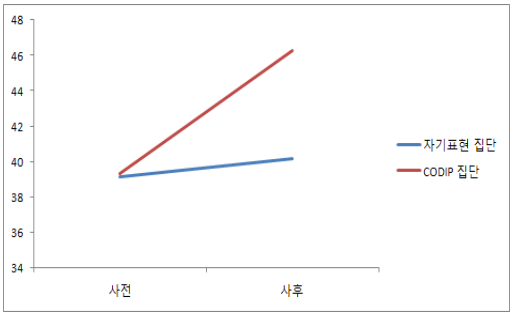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전후 집단 간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아동의 자기 보고식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에 대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이혼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했다. 표 5에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1, 18)=.38$, ns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18)=4.62$, p < .05 와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4.53$, p < .05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이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들의 특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들이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CODIP)에 참가한 아동들을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

www.kci.go.kr

한 아동들에 비교해 보았다. 치료자의 지지와 관심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본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의 자기 보고식 척도 중 이혼에 대한 태도척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이 자기표현 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혼에 대한 태도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이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혼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의 목적과도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자기 보고식 우울, 불안, 공격성 척도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기간의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행동 상의 문제, 우울이나 불안 수준, 그리고 공격성의 정도에서 변화를 초래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 척도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차이를 감지해내지 못하여 이들의 특성이나 미묘한 효과를 밝혀내는 것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umann-Billings & Emery, 2000).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공존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완화되거나 정상적인 적응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혼이 장기적으로 자녀들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Wallerstein & Lewis 2004). 특히 Wallerstein과 Lewis(2004)는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는 잠재적인 심리적 장애의 위험이 많으며, 이들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위험 요소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이들은 객관적 척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혼 가정 아동들이 탄력적일 수는 있으나 취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리적인 집단은 아니지만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이혼 가정 아동 개입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Wolchik 등(2011)이 이혼 가정 아동들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6년 간 추적해 본 연구 결과, 개입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정신 장애로 진단 받는 확률이나 증상이 감소하였고 외현적인 행동 문제 뿐 아니라 마약, 알코올 문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척도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겠다.

본 연구는 비교집단에도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아동 본인, 부모, 그리고 복지관 교사의 직접적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원으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기존의 연

www.kci.go.kr

구들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적은 표본 수, 특히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양 부모 가정 아동의 표본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세 집단의 표본 수가 유사한 정도로 충분했다면, 유사한 환경의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소득 수준, 지역적 배경과 연령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이혼 여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탐색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것인데, 양육 부모, 이혼의 이유, 비 양육 부모와의 접촉, 이혼 전 갈등의 수준, 경제적 어려움, 이혼 이후의 정서적 지지나 부모-자녀 관계 등이 아동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mato, 2000). 셋째, 현 연구의 참가 아동들은 현재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직접 이들의 행동, 정서적 문제를 검사한 것이 아니며 이들 중 일부는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따라서 일부 아동의 잠재적인 행동 및 정서적 문제로 인해 전체 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현 연구는 CODIP가 한국 아동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집단 치료자의 관심과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치료적 효과를 비교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를 했음에도 이혼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아동이 이혼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감정을 나누고 이혼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직접적인 개입의 효과이며, 이것이 이혼 가정 아동에게 꼭 필요한 작업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사후-추후 평가 외에도 종단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지 평가해야할 것이다. 둘째, 이혼 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요소에서 아동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위 요인별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변화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아동이 집단에서 습득한 내용을 공고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아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극대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집 (2005).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7). K-CBCL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오은순 (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열린교육연구, 9(1), 19-45.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

www.kci.go.kr

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 943-965.

조수철, 최진숙 (1989). 한국형 소아 상태 특성 불안척도의 개발. 서울의대정신의학, 14(3), 150-157.

허일범 (1997). 人間關係 改善 프로그램이 初等學校 兒童의 攻擊性 및 對人不安 減少에 미치는 效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lpert-Gillis, L. J., Pedro-Carroll, J. L., & Cowen, E. L. (1989).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program for young urba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83-589.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Blechman, E. A. (1982). Are children with one parent at psychiatric risk? A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79-195.

Chase-Lansdale, P. L. & Cherlin, A. J.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6*, 1614-1634.

Gately, D. W. & Schwebel, A. I. (1991). The challenge model of children's adjustment to parental divorce: Explaining favorable post divorce outcomes i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60-81.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cademic of children psychiatry, 24,* 518-530.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39-56.

Hetherington, E. M. (1999).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Mahwah, NJ: Erlbaum.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 129-140.

Kanoy, K. & Cunningham, J. (1984). Consensus or confusion in research on children and divorc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Divorce, 74*, 45-71.

Kelly, J. B. (198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119-140.

Kovacs, M. (1992).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manual.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Kurdek, L. A. (1981). An integrative perspective

www.kci.go.kr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 856-866.

Laumann-Billings, L. & Emery, R. E. (2000). Distress among young adults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671-687.

Pedro-Carroll, J. L. (1984).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ject: An investigation of the efficacy of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Ph. D. Thesis, University of Rochester.

Pedro-Carroll, J. L. & Cowen, E. L. (1985).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An investigation of the efficacy of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03-611.

Pedro-Carroll, J. L., Cowen, E. L., Hightower, A. D., & Guare, J. C. (1986). Preventive intervention with latency-aged children of divorce: A replic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277-289.

Pedro-Carroll, J. L., Alpert-Gillis, L. J., & Cowen, E. L. (1992). An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4th-6th grade urba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3*, 115-130.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 (1997).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A developmental model for 5 and 6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8,* 5-23.

Smilansky, S. (1992).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family and school, Rockville, MD: BJE Press.

Spielberger, C. D. (1972).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Stolberg, A. L., Cullen, P. M., & Garrison, K. M. (1982). The divorce adjustment project: Preventive programing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Preventive Psychiatry, 1*, 365-368.

Stolberg, A. L., & Cullen, P. M. (1983).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families of divorce: The divorce adjustment project. In L.A. Kurdek(Ed).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19: Children and divorce, 71-81. San Francisco: Jossey-Bass.

Stolberg, A. L. & Garrison, K. M. (1985). Evaluating a primary preventive program for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111-124.

Wallerstein, J. (1983). Children of divorce: The psychological tasks of the chil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230-243.

Wallerstein, J. S. & Lewis, J. M. (2004).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Report of a 25-Year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21*, 353-370.

Wolchik, S. A. & Sandler, I. N. & Mippsap, R. E. & Plummer, B. A. & Greene, S. M. & Anderson, E. R. & Dawson-McClure, S. R. & Hi[ke, K. & Haine, R. A (2011). Six-Year Follow-up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der.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 1874-1881.

원고접수일 : 2011. 10. 27.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1. 12. 02.
게재결정일 : 2012. 01. 0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2, Vol. 31, No. 1, 187-202

The Efficacy of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for Young Korean Children: Comparison of CODIP Group with Self-Expression Group

Lee Kyung-Rim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Kwon Jung-Hae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of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 for Korean children. The CODIP was a 12-week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mitigat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original program was tailored to fit the needs of Korean families. The program was shortened to 10 sessions. In this study, the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also received a 10-week program. Subjects were 4th-6thgradechildren(N=70)from child welfare institutions: 26 CODIP participants, 32 divorce controls, and 12 non-divorced controls.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rated by their parents and teachers using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 Children were asked to fill out the Children's Attitudes and Self-Perception Scale, the 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Aggression Scale. Pre- and post-assessments were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their parents, and teachers, and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the CODIP groups improved significantly on the CBCL rated by teachers and on the Children's Attitudes and Self-Perception Scale. This finding implies that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could benefit from CODIP.

Key words : divorc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www.kci.go.kr